



코헴

99
여름
제32호

KOREA HEMOPHILIA FOUNDATION

• 등록번호/서비 167호 • 등록일자/1991. 9. 17 • 발행인/이순용 • 발행일/1999. 6. 30 • 편집인/김은주



사회복지
법 인 **한국혈우재단**

'99코헬 어린이날 행사



한 국 코헬회에서는 5월 어린이날을 맞아 사회복지법인 한국혈우재단의 후원으로 전국 각 지회별로 사생대회를 가졌습니다.

각 행사는 지회별로 적합한 장소를 선정,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코헬 어린이 및 가족들의 많은 참여속에 성황리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참여한 코헬어린이들은 그 동안의 숨은 솜씨를 마음껏 발휘하여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출품되었습니다. 또한 여가시간을 이용해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한 각종 레크레이션과 게임은 즐거움을 한층 더 해주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코헬 어린이날 행사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코헬가족들의 참여와 성원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차 례

1. 초대석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교수 박선양
2. 혈우병 상식/혈우 보인자에 대하여(Ⅲ)	
4. 기행탐방/북한산 기행	취재 김승택
6. 코헬 어린이 행사	취재 김승택
8. 가정탐방 /회원 이종호	취재 김승택
9. 문예	수필/시
12. 알립니다	

1999년 여름호



- 등록번호 / 서바 167호
- 등록일자 / 1991. 9. 17
- 발행일 / 1999. 6. 30
- 발행인 / 이 순 용
- 편집인 / 김 은 주
- 인쇄인 / 덕수인쇄 김재호

사회복지법인 한국혈우재단

11301-0710

서울·동대문구 용두동 234-1

포은빌딩 3층

TEL : 928-4581~2 FAX : 928-8440

크로바 서비스 : 080-021-7575

선진국의 교육과 직업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교수
박 선 양

10

여년전 유학시절 아이들을 미국 학교에 보내면서 미국의 교육에 관하여 느낀 바가 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교 6학년과 3학년에 다녔다. 미국 초등학교에선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공부는 별로 하는 것이 없었다. 학교생활은 아이들이 친구들과 즐겁게 놀며 사회생활의 기본을 배우는 것이었다. 학교에서는 특히 강조하는 두 가지 원칙이 있었다. 자유롭게 마음껏 뛰놀되 절대로 다른 사람에서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물건을 빼앗으면 가차없이 벌을 주었다. 줄을 서지 않고 새치기를 하거나 공동의 일을 게을리 할 때도 크게 나무랐다. 이러한 행동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불편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은 상대방을 존중하여야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또 한가지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라도 고귀한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공부, 운동을 잘하는 아이는 운동, 노래나 악기, 그림에 재능이 있는 아이들은 그들대로 훌륭한 소질이 있음을 일깨워 주었다. 굶뎠고 구르는 재주가 있다는 우리의 속담이 있듯이 어느 누구에게서나 뛰어난 점을 찾아내어 북돋아 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미국의 초등학교 교육에선, 아이들이 갖고있는 가장 큰 장점을 찾아 격려해주고 과연 나도 세상에서 가치가 있는 사람임을 느끼게 해주었다.

이렇게 저학년에서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몸에 배게 가르치면서 태어나 사는 자긍심을 일깨워 주는데 초점이 있었다. 서로 다른 많은 민족이 섞여 사는 미국이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의 상징처럼 자타가 인정하게 된 데에는 이러한 초등교육이 밑거름이 되었구나 하는 것

을 실감하였다. 우리의 초등학교 교육은 모든 면에서 상대방을 이길 때 잘하였고 평가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켜 보게 된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소양이 우리 아이들의 몸에 배어질 수 있을까?

상대방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지극히 단순한 원칙을 지킬 때만 자신의 자유도 보장받고 자긍심도 키워 나갈 수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눈살이 찌푸리게 하는 많은 일들은 이러한 원칙이 몸에 배게 교육이 이루어졌더라면 없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남을 보살피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의 초등학교생들은 4학년이 되면서부터는 학습수준을 빠르게 높여간다. 6학년의 그들 국어교과서는 우리 나라 고등학교 3학년의 영어 교과서보다도 어렵다. 그러면서도 우리 나라의 청소년들처럼 공부에만 매달리지는 않는다. 대학에 입학할 때는 학습능력뿐만 아니라 특기도 평가하고 훌륭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소양이 있는지 살펴본다.

우리네 청소년에 비하면 학습량은 모 자랄지 모른다. 그러나 학습량만 늘리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사실, 학문은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대학에 들어오기까지는 대학에서 학문을 연마할 수 있는 기본 자질과 소양만 쌓으면 된다. 우리 청소년들은 훗날 대학에서는 별도로 되지 않는 공부를 하느라 건강까지 해치기도 한다. 그리고 막상 대학에 들어와서는 학문 도야와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학에 들어오면 정말 건강을 해칠 만큼 학문에 정진하는 미국의 학생들과는 어찌면 반대의 생활을 하고 있기도 하다.

언제가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잇

감은 교사나 공무원이라고 들은 적이 있다. 일본에도 단점은 많다. 우리로서는 쉽게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을 해왔고, 또 하고 있는 일본이지만 그들의 직업관에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다.

교사와 공무원이 인기라는 것은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이들 직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 다음 세대를 짊어진 우리 자녀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하여 교사의 역할은 중요하고, 범세계적인 국가 경쟁시대에 나라의 살림을 떠맡은 공무원의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실정은 어떤가? 이들 직업이 가장 인기가 있었던 시절은 없었으며 요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직업들은 더욱 이들과 거리가 멀다. 우리 나라에서는 우수한 인재는 큰 회사에 간다. 우수한 인재가 없어 회사가 잘못되면 그 회사만 망하면 된다. 그러나 우수한 공무원이 없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최근의 국가적인 정책혼신,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서 불거진 우리 행정의 난맥상은 이러한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일본이 싫어도 뒤지지 않으려면 그들의 장점이 무엇인지도 꿰뚫어야 한다.

우리 혈우 가족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때로 치료에 지치고 힘들기는 해도 우리는 분명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있고, 삶의 가치가 있다. 남들은 겪지 않아도 되는 고통에 있지만, 우리에게도 남들에게는 없는 장점이 있다. 어떤 때는 이러한 장점이 감추어져 있다. 열심히 찾고 개발하지 않으면 그대로 묻혀 버릴 수 있다. 스스로 장점을 찾아보자. 사회가, 학교교육이 해주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 찾자.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줄 수 있는 책임 있고 가치 있는 사회의 일원이 되자, 국가와 사회,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보람있는 삶을 살 기회를 스스로 찾자.

□ 이 내용은 호주혈우재단이 발간한 소책자인 'On being a carrier'를 번역한 것입니다.

혈우 보인자에 대하여(III)

혈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정보 책자

“혈우병이 내 인생의 한 부분인 것은 확실해요, 그러나 날 보인자라고 부르지 마세요, 이런 칭호보다는 나에게겐 더 많은 것이 있으니까요. 나는 먼저 인간이고, 여자이고, 연인이고, 엄마이면서, 또 친구이니까요...”

어떻게 검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당신은 혈우센터로부터 소개를 받아야 한다. 그들이 가장 가까운 이러한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는 병원을 안내해 줄 것이다. 제8 또는 제9 응고인자의 활성도가 낮은 여성들은 이러한 검사를 수행하기 전에 응고인자의 투여를 필요로 할 지도 모른다.

관련된 검사 : 초음파

초음파는 태아의 성을 알기위해 임신 16-20주 사이에서 행해진다. 이것은 전혀 무해하고 위험이 전혀 없지만, 100% 정확하지는 않다.

낙 태

만일 검사결과가 당신이 혈우를 가진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으로 나오면 당신은 아마도 낙태를 결정할 것이다. 이것은 결코 쉽지않은 결정일텐데, 특별히 당신의 종교나 문화가 낙태를 허용하지 않을 때 그렇다. 그러나, 당신의 부모나 다른 사람들과의 상담 후에 내린 결정이라도, 중요한 것은 그것은 당신의 선택이

있다는 것이다.

나라나 지역마다 낙태에 대한 법이(임신 몇 개월까지 낙태가 가능한가에 대한) 다를 수 있다. 당신의 상담가는 이것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당신에게 열려있는 모든 대안들을 당신과 상의할 것이다.

임신이 진행된 상태에서의 낙태, 즉 임신 12주 이후에는 특별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스럽다. 이런 상황에 처한 여성들은 그들의 혈우센터나 유전 상담자들과 이야기해 보는 것이 좋다.

테스트들의 요약

테스트	수행 시기	유산 위험	장 점	단 점
응모액 생검 (CVS)	임신 10-12주	1%	다른 테스트보다 일찍 진단 가능 테스트의 큰 유용성	만일 아이가 정상일 때 쓸데없는 위험을 줄 수 있다.
양수진단 (Amniocentesis)	임신 14-15주	1% 미만	낮은 유산 위험도 테스트의 큰 유용성	만일 아이가 정상일 때 쓸데없는 위험을 줄 수 있다.
초음파 (Ultrasound)	임신 16-20주	극 소	유산위험도가 최소	성감별만 가능 일찍 진단이 불가

출산 선택들

“우리는 세아이가 있는데, 첫째가 혈우병이에요. 첫째가 아플 때면, 정말 모든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병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혈우병 보다 더 심한 병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혈우보인자인 여성에게는 그녀가 아이를 임신한다면 혈우아이를 출산할 확률은 25%이다. 혈우아이를 출산할 위험을 감행하고 싶지 않다면 다른 대안책이 가능할 것이다.

“전 혈우병 사람들에게 변화가 오고 있고 혈액체제를 통해 바 이러스가 전염되는 경우도 이제는 매우 낮아졌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전 혈우병을 가진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가 걸어가셨던 길은 저희 모두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어요.”

인공수정(IVF)

혈우아동을 출산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배아 생체 검사(embryo biopsy)를 받아보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것은 특별히 반성유전(즉 남자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을 위한 새로운 인공수정 방법이다. 현재로는 매우 비싸고 결과도 모든 사람에게 성공적이지 않다. 배생체검사는 특별한 병원에서만 수행되고 있다.

이 검사에서는, 실제적인 유전적 결함보다는 태아의 성별이 감별되고 그리고 단지 여자의 태아만이 자궁으로 이전된다. 남자태아는 더 자세한 유전자테스트가 가능할 때, 즉 미래의 유전자 진단을 위해 부모의 동의로 얼린다.

어떻게 하는 것인가?

표준 IVF 치료는 난자집군을 위한 난소를 준비하기 위해 오랫동안 코안에 뿌리는 스프레이를 뿌려야하고 주사를 맞아야 한다. 난자들은 질을 통해 모인다. 평균 10개의 난자가 모인다. 그녀의 남편은 난자가 모이는 날에 정액을 채취해야한다. 정액은 난자에 섞이고 그것은 배아가 되는데 이틀동안 더 실험실에서 자란다. 각 배아로부터 세포를 가는 유리바늘을 이용해서 좀 떼어내고 그 세포들은 테스트되어진다. 이 테스트는 약 8시간정도 걸리고 선택된 배아는 여성의 자궁에 착상시킨다. 몇 주후에 혈

액검사로 확실히 임신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대부분의 IVF 시술 병원들은 치료받을 부부들이 적어도 한번 이상은 상담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험

배로부터 세포들을 떼어내는 것은 그 배가 자궁에 착상할 수 있는 능력이나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는 능력과는 관계가 없다. 초기의 배들은 떼어내진 세포를 다시 만들어낸다. 1984년부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천명의 정상 아이들이 얼었다가 녹여진 배로부터 태어났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얼었다가 녹이는 과정에서 생체검사때처럼 세포의 손실이 발생한다.

배의 생체검사는 아기가 비정상적인 것으로부터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을 하지는 않는다. 이런 방법으로 수정된 임신은 자연적으로 임신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험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어떤 배들은 그것이 생체검사를 거치건 안거치건 간에 자궁에 착상 후 오랫동안 살 수 없는 것도 있다. 이런 배는 임신을 보증할 수 없는 것이다.

IVF 시술 병원에서 당신의 상태와 시술비등을 고려하여 시행할 수 있는 지를 상의해보라. IVF 시술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당신의 의사로부터의 소개가 필요할 것이다.

양자입양과 양육

혈우아이를 갖는 위험을 가지고 싶지 않은 부부는 대신에 입양을 선택할 수도 있다. 입양과 양육은 주의 입법권에 있다.

중요한 것은 입양에 관한 법이나 주위의 태도는 지난 20년동안 크게 바뀌어 왔다. 입양은 더 이상 비밀스런 것이 아니다. 이제는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리는 것이 아이의 자아발육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대부분의 양육과 입양 절차는 아이와 태어난 가족사이의 접촉이 필요하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입양법은 아이를 입양하기위한 특별한 자격조건을 포함한다. 현재, 이러한 자격조건은 나이제한도 있고 결혼을 하고 있어야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결혼하지않은 사람이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도 있다. 의료진단도 받아야하고 전과 기록도 조사되고 보증도 필요하다.

* 참고 : 배아 생검은 현재 국내 혈우병의 산전진단에는 아직 적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의 한북정맥 ‘북한산’

취재 김승택

모 든 강물이 산에서 발원하듯 인류문명도 숲에서 시작되었으므로 숲으로 가는 길은 고향을 찾는 길이라 하겠다. 들길에 핀 이름 모를 꽃들이 고향에서 본 것처럼 반갑고 소박한 정감을 느끼게 한다면, 숲 속의 길은 아버지의 품에 안기듯 안정과 평온함을 느끼게 한다. 점차 거대화하는 서울의 도시 환경 속에서 북한산의 위상은 모든 도시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고향이며 정신적 의지공간을 찾아가는 자연회귀의 길이므로 이제 자연을 탐방하는 슬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오늘은 북한산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특징 있는 탐방로를 중심으로 기행해 보기로 한다.

서울의 지붕

북한산은 경기도 고양시의 동쪽 끝에 위치하는 해발 836m의 산으로 일명 삼각산이라고 한다. 북한산은 고양시와 서울 일대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700m 이상의 봉우리로 백운봉, 인수봉, 만경봉이 있으며, 험한 절벽과 기이한 봉우리가 산재해 있다.
현재의

북한산 공원지역은 도봉산 지역과 북한산 지역을 합쳐 1983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20개 국립 공원중에 하나이며 총 면적의 95%인 74.60km²를 산이 차지하고 있다. 최근 유명 여행가들이 뽑은 남한의 10대 절경에 능선은 북한산, 계곡은 설악산 수렴동, 폭포는 설악산 토왕성 폭포, 숲은 한라산의 아열대숲 그리고 기암으로, 북한산의 인수봉을 뽑았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북한산은 4대 명산(금강산, 지리산, 구월산, 묘향산)의 형승미를 두루 겸비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기암절벽이 산재해 있는 천혜의 국방요새 북한산성

삼국시대부터 역사기록을 보면 북한산을 장악하는 나라가 전국도를 장악하였다. 이는 북한산이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한 중요한 전략적 요새지이기 때문이다. 백제가 북한산성을 132년 축성하고 370년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국원왕을 전사케 했다. 고려 고종 19년(1232년)에는 몽고군과 격전이 있었고, 거란이 침입했을 때에는 이곳으로 고려 태조의 재궁을 옮겨온 일도 있었



▲북한산 전경

다. 조선에 와서도 전란이 일어날 때마다 북한산성의 중요성은 거론되었던 것이며 1711년(숙종 37년)에 왕명에 의하여 북한산의 축성공사가 추진되었던 것이다. 당시 북한산의 험한 산세를 따라 7,620보의 석성이 축성되었다. 성체의 최고 높이가 6m 최소높이가 1m 정도이고 최고 두께는 약 3m에 이른다. 북한산성을 축성할 때 전국의 사찰에서 승려들을 동원하여 축성케 했는데 지리산 화엄사 승려인 '성능'은 축성의 감독관으로 있다가 축성이 끝난 후에는 북한산성을 지키는 북한치영의 승군대장이 되어 30년간을 북한산성에 봉직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 눈길을 끈다.

현재 성의 둘레는 12.7km이고, 성안의 면적은 200여 만평으로, 이들 성문 중 문루가 있던 성문은 대서문을 비롯해 북문, 대동문, 대남문, 중성문이 있었는데, 그간 모두 훼손되었다. 6.25사변 이후에 대서문의 문루가 복원되었고, 최근에 들어와 대동문, 대남문의 문루가 복원되어 옛 모습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다.

대서문

고양시의 북한산길로 진입하면 북한산성 출입문으로 대서문을 만난다. 현재 문루는 1970년에 다시 복원한 것이다. 대서문의 문은 홍예문인데 폭은 3.3m, 높이 4m이다. 대서문은 북한산성 성문 중에 가장 큰 문으로서 여장은 화강암을 다듬어 만들었는데 총안이 하나씩 뚫려있다. 홍예문의 좌우에는 누혈이 하나씩 설치되어 있어 빗물이 빠지도록 했다. 성문 주변은 살구나무, 복숭아나무 등이 많아 봄에는 꽃으로 아름다운 곳이다.

명승고적

원각사로 가는 계곡 길에 부왕사의 절터가 있다. 1717년 창건당시 111칸의 대찰이었으나 6.25때 폐허가 되고 말았다. 또한 고려 말 고승 보우가 중창하였다는 중흥사, 1828년(순조 28년) 대웅전과 만세루를 중건하여 일제시대 초까지 북한산성 제일의 대찰로 존속되었으나 1915년 화재로 소실되고 말았다. 김시습은 1455년

이 절에서 공부하다가 수양대군이 왕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통분하여 승려가 되어 방랑의 길을 떠났다 전해진다. 보우가 1341년 개인의 수도처로 창건한 태고암, 태고사 경내에는 지금 보물 제611호 지정된 원증국사탑비, 이 탑의 비문은 당대 명신 이문이 짓고 당대 명필인 권주가 썼다고 한다. 그리고 보물 제 749호로 지정된 원증국사탑이 있다.

봉우리

산봉우리를 살펴보면 의상봉에서부터 성을 따라 연속되는 기암괴석과 숲이 조화를 이룬 용출봉, 용혈봉, 증취봉, 나월봉, 나한봉, 문수봉, 대동문을 지나 만경대 그리고 백운대에서 다시 원효능선을 따라 염초봉, 원효봉등 20여 봉우리가 산성과 연결되어 행궁을 천연의 철벽요새화한 조화롭고 심미적인 역사문화의 극치를 느끼게 한다. 또한 북한산 역사문화의 지표가 될수 있는 가장 유서 깊은 장소라 할수 있는 비봉, 신라24대 진흥왕 순수비가 서있는 봉우리로 조선조 말 추사 김정희가 발견하여 문안을 해석했으며 지금 비석은 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고 이곳에는 모조비가 서있다.

주변 유원지

북한산성은 수도권에서 교통이 편리하여, 1960년대 후반부터 시민들의 주말 관광지로 많은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 또한 북한산의 등산을 겸하거나, 인근에 송추, 일영, 장흥유원지가 근접해 있어, 문화유적을 겸한 휴양지로 제격인 곳이다.

끝맺는 말

호젓하고 쾌적한 숲길은 이름 모를 온갖 나무들이 마치 탐방객을 말없이 반겨주듯이 손짓하지만 그 아름답고 기이하게 생긴 나무들의 이름과 속설을 알면 더욱 인생이 참되고, 선하며, 아름다움을 숲 속의 나무와 말없이 서있는 많은 유적들로부터 배울 수 있을 것이다.



- ▲ 북한산성의 정문으로 제일 먼저 복원된 대서문 전경
- ▲▲ 신라 24대 진흥왕순수비가 서 있는 비봉



▲ 소풍 (김현승)



▲ 낙서장 (박태훈)



▲ 강의 나라 (조형희)



▲ 이제라 우리팀! (정봉준)



▲ 푸른강원 (김태봉)



▲ 리수원 풍경 (박영훈)



▲ 모래 두마리 (송준석)

우 리 숨 씨

어

때

요

?



▲ 즐거운 야유회 (한주영)



▲ 추억의 학강 "작관" (이준)



▲ 바닷 빌딩 (박민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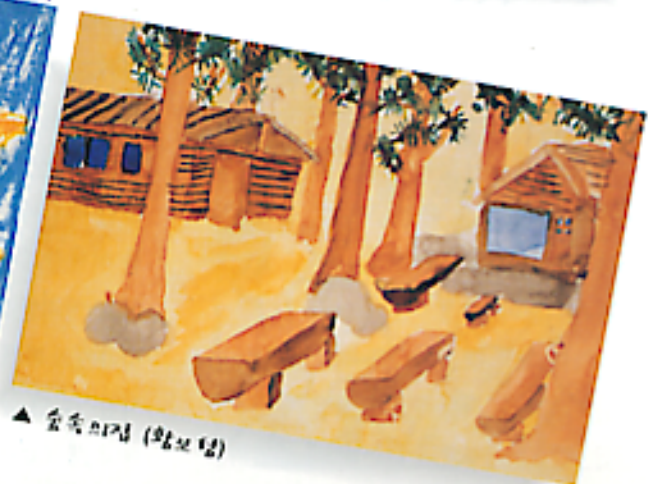
▲ 우주 (권영민)



▲ 바다나라 (손용진)



▲ 거북선 (조규민)



▲ 숲속의 집 (황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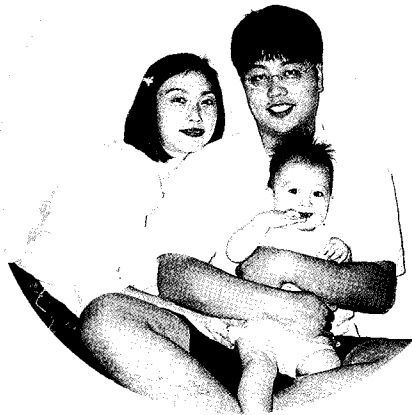
미소속에 담겨진 행복

취재 김승택

1번 국도를 따라 올라가다 구파발을 지나 장흥쪽 못 미쳐 과주시 광탄면이 나온다. 이곳 분수리에 있는 신산주유소에 가면 여기 저기 분주히 돌아다니는 한 사람을 볼 수 있다. 그가 오늘의 주인공 이종호씨(30세)다. 나이답지 않게 옻돼 보이는 그가 애기아빠란다. 아내와 8개월 된 아들, 이렇게 세명의 단란한 가족이다. 주유소에서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어느덧 저녁 8시, 이때쯤이면 요즘 한참 웅알거리리는 아들 한빈이가 생각나 종호씨는 저절로 미소가 머금어 진다. 사실 그런 그가 결혼에 대해서는 그렇게 절실하게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한다. 여행을 좋아 했던 종호씨는 대학 시절부터 그저 시간이 되고 여건만 되면 배낭하나 달랑 집어 들고 무작정 집을 떠나는 일이 많았다. 졸업을 앞둔 때에는 우리 나라를 거의 다 돌아봤고 졸업 후부터는 눈을 세계로 돌려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와 미국을 여행하며 젊음의 기상을 발산하곤 했다. 하지만 시각디자인을 전공한 그는 출판사에 입사한 후로는 직장인으로서 어쩔 수 없이 일에 매달려 잡힌 몸이 된다.

“항상 똑같이 돌아가는 생활에 정말 회의가 느껴졌어요. 유명잡지를 만들다보니 야근도 많이 했고요. 몸도 마음도 고달팠던 시기였어요.”

그런 그를 조금이라도 위로해 주었던 건 다름 아닌 카메라였다. 어릴 적부터 사진 찍기를 좋아했던 그는 이때 큰맘먹고



▲이종호씨 가족(아들 한빈이는 울다가도 사진만 찍는 다면 금세 웃는단다)

그 동안 가지고 싶었던 카메라를 장만했다. 그가 보여주는 앨범에는 아내 미라씨와 한빈이의 모습으로 가득 하다.

종호씨가 아내 미라씨(29세)를 만난 건 아버지가 하시는 지금의 주유소에서 일하면서부터다. 우연히 거래처 사람의 소개로 선을 보게 되었는데 이들의 첫 만남의 에피소드가 남다르다.

“처음 만나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고 난 후 임진각으로 테이트를 나갔는데 종이컵의 커피가 한잔에 천원이었어요. 두 잔을 시키고 이천원을 지불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부인)이 대뜸 그러잖아요. 두잔을 천원에 안주면 안하겠다고...” 어이없어하는 주인 아저씨는 이미 물을 부어버린 커피를 어찌할 수가 없었던지 끝내 눈물을 머금고 커피한잔을 500원에 팔고야 만다. 미라씨의 이런 행동에 종호씨는 ‘아! 이런 사람이라면 살림 또한 당차게 하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어떻게 처음 만난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냐고 묻는 물음에 미라씨는 “너무 아까웠어요. 아무리 조심스러운 자리였지만 종이컵의 커피가 한잔에 천원이라면 너무 비싸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웃음을 터트린다. 아무튼 지금도 가게부를 매일 쓰며 살림을 하는 미라씨를 보면 그때의 행동은 아마도 당연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요즘 미라씨는 너무 일밖에 모르는 남편이 조금은 불만이다. 남들처럼 집안일도 좀 거들어주고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하지만 더 큰 바람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란다.

평소에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못했다는 종호씨는 또한 아내사랑에 여념이 없다. “아내에게 항상 감사해요. 제 건강에도 신경 써 주고, 그리고 착한 며느리애다가 살림도 잘하죠 또 아들도 낳아주었고요”

아내의 생일 한번 제대로 못 챙겨주는 멧(?)없는 사람이지만 그의 근면 성실함을 믿어주고 묵묵히 따라와 준 아내 미라씨, 건강하게 자라는 아들 한빈이, 이 가족의 얼굴에는 행복이 듬뿍 배어있다.

“소망이라면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오래 오래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나중에 돈 많이 벌게 되면 여행도 떠나고 싶고요.” 소박한 그의 꿈을 뒤로한 채, 필자를 배웅하며 손을 흔드는 그들의 미소 속에서 어찌면 물질만능주의에 빠진 요즘, 진정한 행복의 가치는 재물과 권력이 아닌 이처럼 작은 행복함에 미소짓는 웃음이 아닌 가 생각해본다.

나무와 새

전남 김현중 (7세)

산에 산에는 나무가 아주아주 많다

나무에는 울음도 웃음도 있다

바람이 불면 무서워서 울고

꽃이 피면 즐거워서 웃는다

새들은 나무에 둥지를 만들고,

이 나무 저 나무를

마음대로 날아 다닐 수 있으니까

참 재미있겠다

내가 만약 새라면 참 좋겠다



나의 필리핀 여행기

이번 필리핀 여행은 두 번째이다. 첫 번째의 준비 없던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는 여러 가지 후회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은 시행착오 없이 무사히 21일간의 필리핀 여행을 마칠 수 있었다. 해외여행이라는 것은 일반인이 아닌 우리 혈우인으로서 조금 다른 느낌을 받게 된다. 움직이기 싫어하는 우리들만의 생활습관, 또 모험을 두려워하는 본성이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벽으로 남아있지 않은가? 그러한 고정관념의 세계에서 탈출을 시도해보자

대구 김승근

필리핀의 역사

400여년동안 스페인, 미국, 일본등에 의해 지배를 받았던 나라이기에 신비롭게도 동양과 서양의 문화를 다양히 느낄수 있는 나라이며, 언어는 따갈로그(필리핀어)를 사용하지만 영어가 공용어이기에 중학교수준의 영어만 이해되면 의사 소통이 어느정도 가능한 나라이다. 1인당 GNP는 1,000달러 정도이며 빈부의 차이가 상당히 크므로 60년대부터 90년대가 동시에 존재하는 곳이기도 하다. 기온은 항상 덥고 5월부터 9월경까지는 우기로 비가 많이 온다. 예전 60년대에는 아시아에서 경제 1위를 차지 하기도 했던 나라이지만 독재정권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지금은 후진국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출국하기전

일반인들이라면 여권과 항공권만 있으면 바로 출국할수 있지만 우리는 약품을 가져가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문 진단서가 필요하다. 한국혈우재단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었다(하지만 필리핀을 방문하면서 약품 때문에 문제가 되었거나 진단서를 요구하는 일은 없었다).

필리핀은 우리나라와 무비자 체결국이라서 여권을 가진 사람은 3주동안 무비자로 체류할 수가 있다. 다만 왕복 항공권만 있으면 된다. 첫 번째 여행은 우리 항공기를 이용하였으나 이번 방문은 필리핀 항공기를 이용했는데 안내 방송이 한국말로 나오고 승무원도 한국사람이 한명 탑승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 소통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내가 탄 필리핀 비행기의 여승무원은 모두 아줌마(?)여서 조금 아쉬웠다).

나의 짐은 라면 한박스, 세면도구와 필기 도구, 몇벌의 옷과 붕대, 알콜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린에이트 24병, 예상 총경비는 60만원 이었다. 여행사에서 4-5일 코스가 60-90만원이라 하는데 나는 21일간의 총 여행경비를 고작 60만원으로 잡았으니 어떻게 보면 저지 여행이 될 수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천만에, 그곳에서의 생활은 절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프라이베

이트 풀(집이 딸려있는 개인 수영장)에서 놀 만큼 상당히 부유층 급으로 여행을 하고 왔다.

출국당일

탑승시간 보다 2시간 정도 일찍 도착하여 수속을 밟았다. 항공권도 할인항공권(여행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값싼 항공권)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십여만원이상 이익을 봤다. 짐은 찾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에 이번에는 기내로 들어갈 만큼 작게 준비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세관에 약품을 신고할까 해서 물어봤더니 괜찮다더군, 용기를 내어 그냥 들어갔다.

필리핀 공항 도착

필리핀까지는 대략 3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된다. 필리핀 항공은 늦은 시간에 떠나는 비행기라 이곳에 도착하니 저녁12시였다. 이제 한국말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말이 되건, 안되건 간에 영어만을 사용해야 한다. 말이 안통할때는 전세계 공통어인 바디랭귀지(?)를 써야 한다. 공항에서의 순서는 입국 심사, 세관 심사를 하면 끝난다. 다만 입국심사 때 뭘 물어볼까? 뭐라고 해야 하나? 잔뜩 긴장을 하고 있었지만 그런데 의외로 간단했다. 줄서 있다가 여권만 던져 주니까 그냥 바로 바로 통과다. 세관에서는 내 가방을 보고 형식적인 질문 한가지를 내게 던졌다. "왓-이즈-뎃" 나는 아주 천천히, 웃으며 간단히 응답했다. "라면" 그러니까 통과다.

필리핀의 생활

숙소는 마닐라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라구나 깔람바에 위치한 민박집(홈스테이), 컴퓨터 통신을 즐겨 하는 나에게는 여러 가지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얻을 수 있었고 그것을 이용하여 홈스테이를 알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보다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국가였다. 일반 가정의 한달 수입이 20만원 정도, 저축률 또한 매우 낮은 것으로 보아 별면 번 만큼 써 버리는 것 같았

다. 이곳 사람들은 한국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매우 친절하며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동경하고 있었다.

어디를 가거나 일류급 대우를 받으며 거의 부유층의 생활을 했다. 식당에 가면 제일 비싼 음식을 먹었고(그때 봐야 3천원수준) 팁도 꼬박꼬박 건네줬다(150원-300원 수준). 영어가 안 통하면 한국말과 바다랭귀지를 사용했다. 극장, 서점, 주점, 페스트푸드, 커피숍, 일급 식당, 리조트, 폴장, 당구장, 오락실 등 곳곳을 누비고 다니면서 메모하고 그들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기회를 찾기 위해서이다. 아마 다음 번에 이곳을 방문한다면 분명 투자의 가치를 찾으리라.



서 나온 서적이 눈에 잘 띄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었던 코너가 월간지 코너의 '권총 잡지'였다. 프라모델이 아니라 진짜 총에 관련된 책인데 책의 맨 뒷장에 증고 권총 사고팔고란이 있었다. 이곳은 총기 소지가 가능한 나라이기에 이런 것이 가능하다. 20불짜리도 있어서 하나 살까 했는데 관뒀다.

의료-약국/병원

종합병원은 큰 도시마다 한 개씩 있고, 의약품도 미제, 독일 제만 쓴단다.-자체 생산 능력이 없으므로 수입 완제품- 약국에서 약을 지으려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와야 살수가 있다. 우리 나라도 이렇게 된다면 좀 번거로운 것 같았다. 집 주위에는 소규모 개인 병원들이 많이 보였다.

교통 수단

지푸니와 트라이씨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택시는 마닐라를 좀 벗어나면 흔하지 않아 타기가 어렵다. 가까운 곳을 이용할 때는 트라이 씨클을 이용하는데 이것은 오토바이를 개조하여 옆에 사람을 태울 수 있게 만든 것이고 탈 때마다 가격 흥정을 한다. 지푸니는 일종의 버스인데 특별히 정류장이 없고 다만 출발지와 종착지가 있다. 서는 곳이 승강장이며 내리는 곳이 하차장이다.

에피소드 몇 가지

하나. 홀리위크사건 - 전체 인구의 80%가 카톨릭 신자란다. 그래서 어떤 행사건 간에 카톨릭 의식으로 행해지는 것이 많다. 그 중에 예수 고난 주간(부활절 전주일)에는 홀리위크라부르면서 모든 업무가 일시에 정지가 된다. 관공서는 물론 국영TV방송, 라디오까지, 교통 수단도 마비, 상점 등은 문을 닫고, 거의 1주일간 침묵의 시간이 되어 버린다.

투계장

싸움닭 두마리중에 한 마리에 돈을 걸고 시합하는 놀음이다. 닭의 발에 날카로운 칼을 달고 싸우는 경기인데 승률이 50:50이다. 이기면 건만큼 받는 게임인데, 매우 흥미가 있었다. 나도 호기심에 두 번을 해서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졌다. 장내 아나운서가 외국인인 왔다고 손뼉 치고 난리가 났다. 서로 자기 닭을 안고 사진 찍으라고 하고, 민망할 정도였다.

두울. 잔돈없음! - 화폐단위는 페소라 하여 지폐로는 1,000, 500, 100, 50, 20, 10, 5 짜리가 있고 동전으로는 5페소 1페소 25, 10, 5, 1 센타보등이 있으며 100센타보가 1페소이다. 환율은 1페소가 30원꼴이다. 집 주위의 가게에 가서 콜라와 빵 과자 등을 샀다. 500페소를 냈더니 잔돈이 없다고 못 판단다. 어쩔 수 없이 종류별로 싸쓸이 구입을 했다.

극 장

낙후된 나라이지만 극장만큼은 우리 나라 수준과 비슷했다. 아니 오히려 더 좋았던 점도 있다. 앞좌석간의 거리가 우리 나라 보다 훨씬 넓기에 다리가 편했고 에어컨 시설이 엄청 잘되어 있기에 흠기까지 했다. 아쉬운 것은 한글 자막이 없다는 것(!) 요금은 1,300원

날씨가 더워 샤워를 수시로 하게 된다. 날이 더운데도 습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짜증같은건 나지 않았다. 게다가 준비해 온 약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첫 번째는 무리한 움직임이 없었고 두 번째는 가까운 곳도 트라이씨클을 이용했기 때문에 걷는 것도 많지 않았다. 예방 차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약을 맞긴 했지만 걱정만큼 몸이 아프거나 하지 않았기에 다행이었다. 필리핀은 참 흥미로운 나라였다. 사업적으로 봐서는 우리 나라의 창업비 10%수준으로 개업을 할 수가 있고, 교육적으로는 저렴한 경비로 영어 연수를 할 수 있고, 문화적으로는 한나라에 동양과 서양을 느낄 수가 있어 좋았다. 다시 오고 싶은 나라 필리핀. 다음에는 코헨친구들과 함께 갔으면 한다.

서 점

서적의 80%이상이 외국 수입, 번역 서적이다. 자체 출판사에

광 주 소 식

광주. 전남지회에서는 5월 22일 여수에서 100여명의 회원 및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날 행사를 성황리에 끝마쳤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어린이 사생대회, 장기자랑 그리고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장기자랑 등 다채로운 순서를 가지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특히 김현중 어린이가 문예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했습니다. 끝으로 여수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행사를 무사히 치를 수 있어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앞으로 지회 모임에서는 수시로 주사일지 작성법과 약품관리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전 주 소 식

전주. 전북지회는 지난 5월9일 전주동물원에서 99년 어린이날 행사를 가졌습니다. 회원과 그 가족, 그리고 자원봉사자 등 40여명이 참석하여 사생대회를 비롯해 글짓기와 게임으로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한편 지난 10 여년간 전주. 전북지역 혈우회원들의 진료를 맡아오셨던 전주예수병원 김완섭선생님께서 병원을 사임하시고 전주시 완산동에 예일병원을 개원하였습니다.

6월15일에는 선생님에 대한 조촐한 송별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 동안의 노고와 감사의 표시로 감사패 증정이 있었으며 이 자리에서 김완섭선생님께서 '우리 주 위에는 더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걸 잊지 말며, 밝고 건강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다보면 더욱 빛나는 내일이 있다.'고 당부하였습니다.



대 구 소 식

대구. 경북지회는 4월25일 어린이회관에서 '99 어린이날 행사의 일환으로 사생대회가 있었습니다. 10여명의 어린 회원들과 가족들이 모여 그림그리기와 함께 모처럼 야외에서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좀 더 많은 회원이 참석하지 못해 아쉬웠으나 내년을 기약하며 무사히 행사를 마쳤습니다.



부 산 소 식

부산. 경남지회는 5월9일 을숙도 공원에서 어린이날 사생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73명의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모여 그림그리기와 점심을 같이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

졌습니다.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이날은 모두 마음껏 뛰노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와 장소선정에 있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재 단 동 정



사회복지법인 한국혈우재단에서는 지난 6월 5일 경희대학병원 정형외과 조운제 교수님 외 여러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정형외과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날 검진에는 19명의 코렘회원들이 진료를 받고 현재 각 부위별 골관절의 상태진단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어린이 날 행사 입상작 발표

99년도 어린이날 행사와 관련하여 어린이 회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그림과 문예작품을 공모하였습니다.

각 지역별로 이루어진 이번 행사는 전국에서 그림 71점 문예 4점등 총 75점의 작품이 출품되었습니다. 이에 엄정한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시상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신 어린이 회원과 가족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 입상작품의 시상은 각 지역별로 실시 되었으며 참가자 전원에게도 소정의 선물이 수여되었습니다.

응모부문	수 상	작 품 명	입 상 자
그림	최우수상	상상의 세계	전북 송동진 (12세)
	우수상	쥐의 나라	전북 조현태 (11세)
	가작	과수원풍경	서울 박영훈 (10세)
	가작	즐거운 아유회	서울 한주영 (9세)
	장려상	이겨라 우리팀	대구 전용준 (12세)
	장려상	바다낚시	대구 손용찬 (8세)
	장려상	푸른공원	서울 김재봉 (6세)
	장려상	우주	경남 김정원 (8세)
	가작	나무와 새	전남 김현중 (7세)
	문예	가작	나무와 새

소식란

'99년 코렘 하계캠프를 개최합니다.
무더운 한 여름밤에 시원한 바닷바람 같은 캠프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 ◆기간 : 1999. 8. 11~8. 14
- ◆장소 : 충남 당진군 「청소년수련마을」
- ◆참가대상 : 초등학교 3학년 이상
- ◆접수방법 : 각 지회 및 한국코렘회로 전화접수
- ◆문의 : 한국코렘회 사무국 (02) 929-9802

혈우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전국의 혈우병 환자들의 치료와 재활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해 주는 한국혈우재단보가 계간으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메미소리 들리는 여름, 원두막에 올라가 수박이며 참외를 한껏 먹고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어릴 적 한편의 추억을 떠올리며 여름을 이겨봅시다. 이제 어느덧 제 32호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소식을 정확히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저희 편집부의 작은 정성이 코렘가족 여러분에게 많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동안에 "코렘"에 도움을 주신 여러분, 소중한 글을 보내주신 코렘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1.내 용 : 시, 수필, 투병수기, 체험담, 콩트 등의 문예물과 기타 알릴만한 내용과 혈우병치료에 관한 궁금한 사항
- 2.모집기간 : 별도의 모집기간없이 수시모집
- 3.보내실곳 :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234-1 포은빌딩 3층 한국혈우재단
- 4.상 품 :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종 이 학

익산 황등초등학교 4학년 이 승 배

내가 만든 종이학아
맘껏 날으렴

사랑과 희망을
듬뿍싣고 맘껏 날으렴

꿈의 나라에도
갔다가 보고

생각의 나라에도
갔다가 보면

너의 얼굴에서
웃음이 한 가득한걸
보고싶구나